

# 고정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법 (간편화=?)



# 사과 꺾는 기계 - 5소면 1개

발명의 또 다른

이제 편하게 깎자! 사



## REDA apple slicer

designer: IKEA of Sweden

product description

Colour: green  
Blade: Stainless steel 13-0  
Handle: ABS plastic  
care instructions  
Dishwasher-safe



TIP : 아주 손쉽게 빠르게 과일을 자를수 있습니다.



# 신제품 융복합 도입 기법 (재미 있고 간편화)



# 스마트 침대



Don't waste time !

# 발명 위에 발명기법 (단순화, 정화차원)



미래 백화점은...?

옷가게 전신 스

알려줘



# 결국

발상 전환법 탐구...?  
(발명기법 + 전환기법)

# 발상 전환방법 1

## 확대(擴大)가능성

### Magnify?



- 시간을 준다면?
  - 좀 더 횡수를 늘린다면?
  - 다른 가치를 부가한다면?
  - 더욱 강하게 한다면?
  - 더욱 길게 한다면?
- 예) 산모를 위한 분유, 녹차 먹인 돼지

## 축소(縮小)가능성

### Minify?



- 제거한다면?
  - 작게 한다면?
  - 낮게 한다면?
  - 압축한다면?
  - 가볍게 한다면?
  - 짧게 한다면?
- 예) 씨 없는 수박, 무가당 주스

## 대체(代替)가능성

### Substitute?



- 다른 사람으로 한다면?
  - 다른 재료로 한다면?
  - 다른 공정으로 한다면?
  - 다른 장소로 한다면?
- 예) 못을 나사로, 김치 불고기 피자

# 발상 전환방법 2

## 재배치(再配置)가능성 Rearrange?



- 순서를 바꾼다면?
- 일정을 바꾼다면?
- 성분을 바꾼다면?
- 다른 레이아웃은?
- 원인과 결과를 바꾼다면

예) 음식점 선불제

## 역전(逆轉)가능성 Reverse?



- 반대로 한다면?
- 상하를 바꾼다면?
- 역할을 뒤집는다면?

예) 에스컬레이터

## 결합(結合)가능성 Combine?



- 혼합한다면?
- 합체한다면?
- 통합한다면

예) 지우개가 달린 연필, 스마트폰

# 발상 전환방법 3

**전용(轉用)가능성**  
**Put to the other uses?**



- 현재 상태로 다른 용도는 없을까?
- 약간 개조해 사용한다면?
-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예) 천막 재료를 청바지로

**응용(應用)가능성**  
**Minify?**



- 이것과 비슷한 것은 없을까?
- 어떤 것을 흉내 낼 수는 없을까?

예) 수상스키, 스노우보드

**변경(變更)가능성**  
**Modify?**



-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다면?
- 색, 소리 냄새, 의미, 움직임, 양식, 형태 등을 바꾼다면?

예) 누드 컴퓨터, 네모난 수박

# ◆ 발명 활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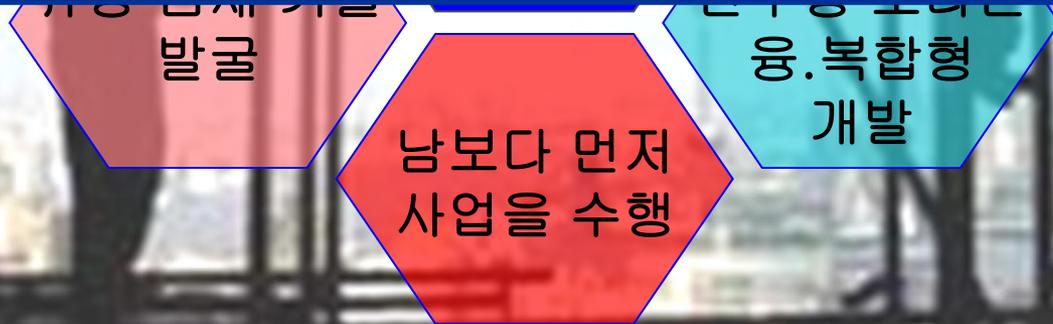


**우리 대응전략은...?**

# 생산(발명)의 활용전략



불편함을 찾아라, 거기에 돈



**리더들이여 위기탈출...?**

# 리더들이여, 위기탈출을 원하는가?

## 자기확신 (Conviction)

- 실패를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 훌륭한 리더는 남의 탓 안 해

## 소통과 연결 (Connect)

-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받아라
- 모든 것은 열려야 생명력 얻어

## 기민한 변화 (Change)

- 직위·직책 떠나 잘못 지적하고
-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살아남는다

**실패의 최소화와  
유연성을 발명 성공!**

# ✓ 융복합 시대 대응 : 유연성을 키워야

## 융·복합시대 대응... 전공외 분야 공부통해 사고 유연성 키워야

### 미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강영기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를 보는 눈은 과거를 보는 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는 이미 벌어진 사실들을 갖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죠. 미래에는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의사결정입니다."

연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AMP) 입학기 네 번째 시간. '미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맡은 강영기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역량은 통찰력과 분석력, 그리고 정보력"이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1989-1997년)에서 전자정보산업실장을 지내고 삼성전자 경영기획팀(1998-2009년)에서 팀장(전무)을 거친 그는 경영학 석사보다는 주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문가의 통찰력을 가져라"  
"통찰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밖에 있으면서 안을 보는 것이죠.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고가 없는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은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無)해고를 달성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파악할 것입니다."

통찰력은 곧 사건과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입체적 사고를 뜻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종합적 △다면적 △분석적 △지속적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종합적인 사고는 흔히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기후와 토양, 그 지역의 역사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종합적인 사고입니다. '악마는 작은 곳에 숨어 있다'는 말을

신의 생각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커다란 적이죠. 다면적 사고란 상대방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끔 부정해 보는 것이 다면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적 사고는 사물이나 대상을 잘게 자르고 구분해서 보는 사고 방식이다. 분석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프로야구에서 2할5푼의 타자와 3할 타자의 연봉 차이가 크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스무 번 타석에 들어설 때 2할 5푼이면 다섯 번, 3할이면 여섯 번 안타를

작은 실수가 프로젝트 망쳐  
경영자는 큰 것만 보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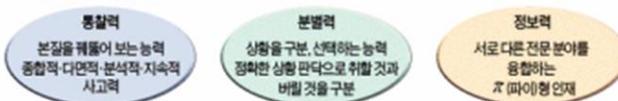
리더는 모르면 참전 자제  
부하의 역량발휘 유도

카터는 수영장까지 신경  
많은 것 하다가 큰 걸 놓쳐

미래 대비는 사람이 중요  
교육통해 눈높이 높여야



#### 미래를 읽는 3가지 역량



#### 거대기업의 몰락과정



터 대통령은 너무나 성실했던 나머지 백악관 안에 있는 수영장 관리까지 신경썼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 큰 걸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력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무라연구소로 대표되는 정보력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정보의 양보다는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미래를 보는 정보력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세(勢)'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손자는 적군이 나타나는 방향과 시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적이 어디서 나타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해법을 강추는 것을

해졌다는 설명이다.  
◆"핵심 역량을 고집하지 말라"  
강 교수는 개리 해럴드 런던비즈니스스쿨 수가 제시한 '핵심 역량의 경직성'이라는 말을 경영자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역량의 경직성'이란 한 번 성취한 이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역량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해 결국 실패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의 책 '역사의 구'에서 비슷한 내용의 '창조의 전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문명은 창조인 소수자에 의해서 탄생하는데, 그 창조인 소수가 어느 순간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고 자해적 소수로 바뀌면서 문명이 쇠

**결언... 마무리?**

# 죽기살기로 퍼팅하니, 호미로 판 듯 길이 보이더라



이대건 기자 ecoro@chosun.com

최경주는 고대 무연히 골프를 만난 뒤 골프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았다. 처음에는 "부모 동굴 헤엄치는 다"며 반대했던 부모도 "큰 물에 가서 놀라"며 최경주를 뒷바라지해주었다. 그의 이름은 서울 경(京)에 두루 주(周)다. 그는 전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며 승리를 일구는 프로 골프 선수수가 되었다.

한현우의 커튼 골



자서전 펴낸 '탱크' 최경주... 한국인 최초 PGA 골퍼·8번 우승 '기록의 사나이'

A photograph of two herons perched on a dark, gnarled branch against a warm, golden sunset sky. The herons are silhouetted against the bright light, with their wings partially spread. The background shows a horizon line with some clouds and a bright sun setting behind it.

감사합니다.

[tjng@kisti.re.kr](mailto:tjng@kisti.re.kr)